

절절하게 러치신 진정

2019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인민병원(당시)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.

병원을 지방병원의 본보기로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일떠세우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삼지연군사람들이 이 병원 건설장면을 지나갈 때마다 병원조감도와 평면도를 보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평면도를 보고서는 이 병원이 얼마나 훌륭한 병원인가 하는것을 다는 모를것 이라고, 이 병원이 완공되어 실지 그 덕을 보게 되면 삼지연군사람들이 더 좋아할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.

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삼지연읍지구에 많은것을 건설하고있지만 이 병원을 건설하는것이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인민병원건설을 빨리 완공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.